

# 간편한소식 타임즈



「간편한 소식 타임즈」는 3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 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글 최문선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팀

## 신속항원검사

### # 정부 '신속항원검사, 한의원은 시행 불가' 방침에... 한의협 거센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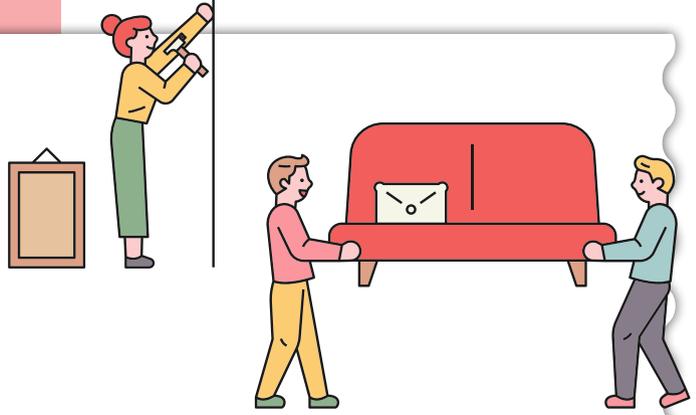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 의사협회는 “방역 당국이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입장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강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방역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치료나 처방이 어려워 검사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지원은 물론 확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 막힌 하늘길 열리나...

###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에 여행·항공업계 '화색'

최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여간 급감했던 여행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한해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괄 해제했다. 국내 항공사들도 막혔던 노선을 재개하고 여행사들은 잇따라 관련 해외여행 상품들을 출시하며 여행객 수요 잡기에 나섰다. 21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지침을 발표한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상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해외 항공권 예약도 같은 기간 60.7% 급증했다. 이에 여행사는 다양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항공사들은 국제선 주요 노선들의 항공편을 증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서울시, 청년에게 교통·이사비 지원... “공정과 상생의 청년 서울”

서울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청년 지원 사업에 2025년까지 6조 2,8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50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4차 산업 인재 양성 기관인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곳 이상 조성할 예정이며 종합재무 상담을 해주는 ‘서울 영테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월세지원’은 연간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2025년까지 5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만 19~24세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하반기에는 일반 가구보다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 # ‘포켓몬빵’으로 유인해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남성... 알고 보니 발목에 전자발찌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빵’을 찾아준 다며 초등학생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직원은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20일 밤 8시쯤 포켓몬빵을 사러 온 11살 B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한 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선 B양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양 아버지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